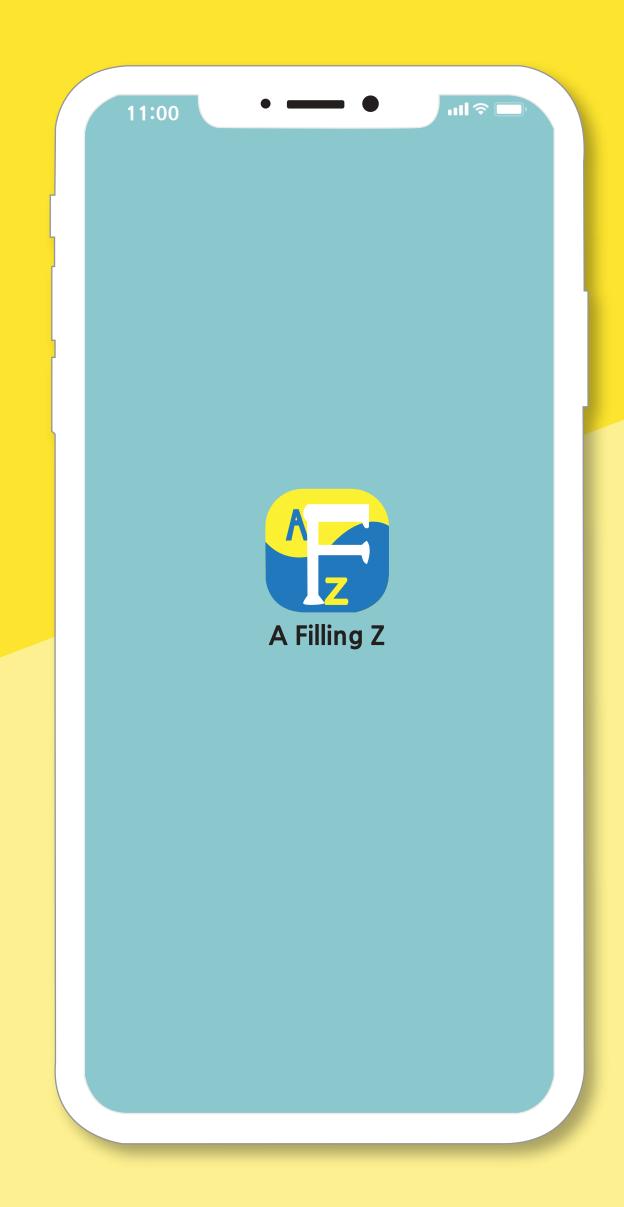
A Filling Z

터치 한번으로 시작하는 구독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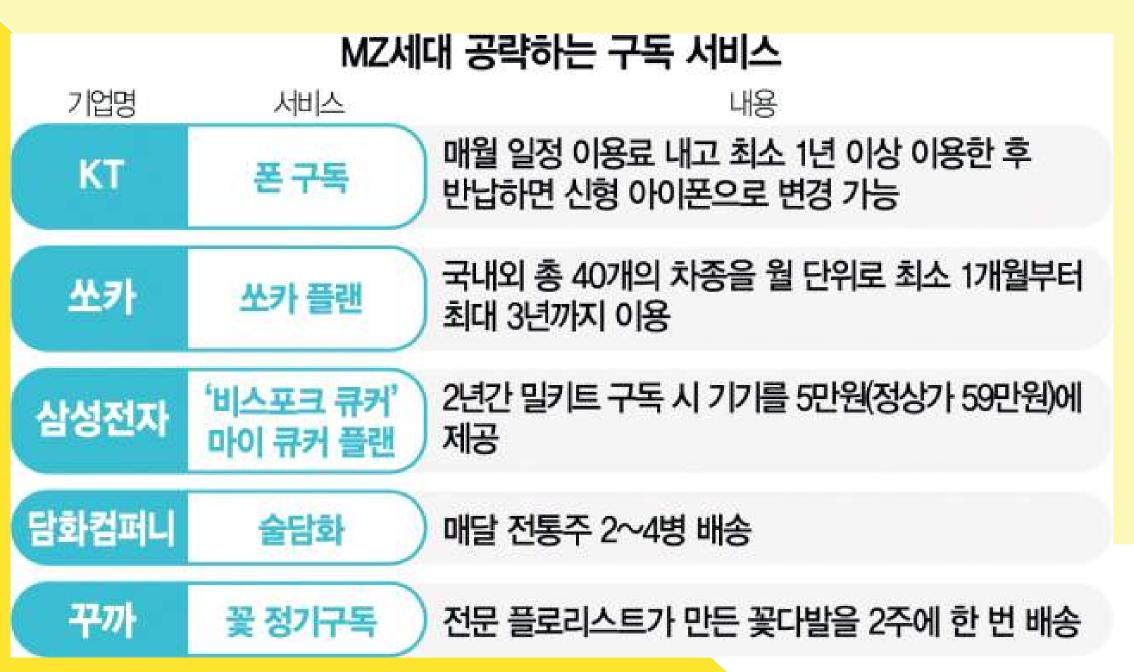
생필품 ~ 식품까지 터치 한번으로

By: 강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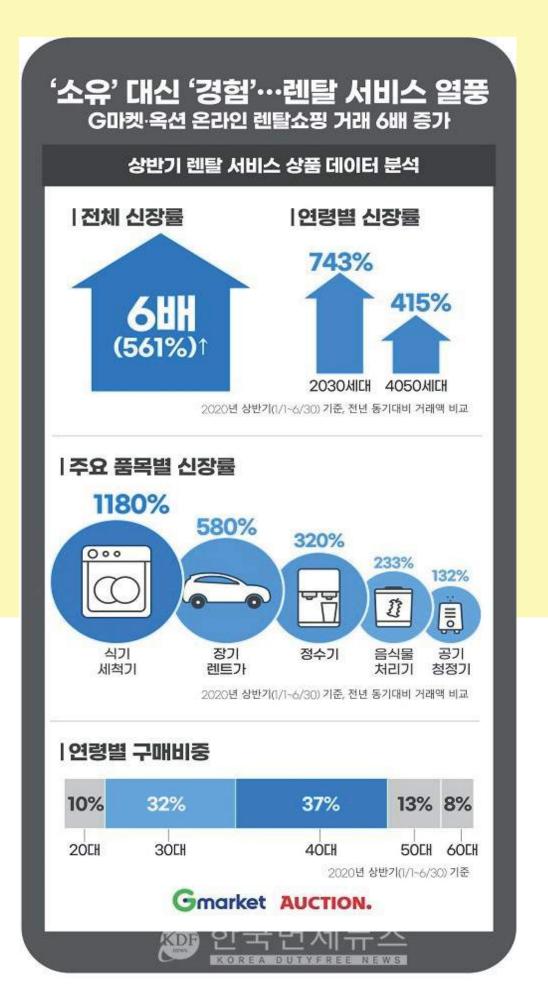


What?

 요즘 Trend인 "구독"을 활용한 플랫폼이며, 구독이란 본인이 필요한 생필품, 식품 등의 제품을 본인이 지정한 날짜마다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서비스이며, 단기로 살 때 보다 경제적이며, 요즘 같이 1인가구, 편리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기업들의 MZ세대들을 잡기 위한 구독 서비스



MZ세대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그에 따른 구독 경제의 성장

Design Concept

Ocean&Sun

바다를 보는 것 같은 background에 그 위로 햇빛 같은 노란색을 넣어 Energetic 하고 친근하면서도, Cool한 어플을 표현 원했음.

App Icon



Art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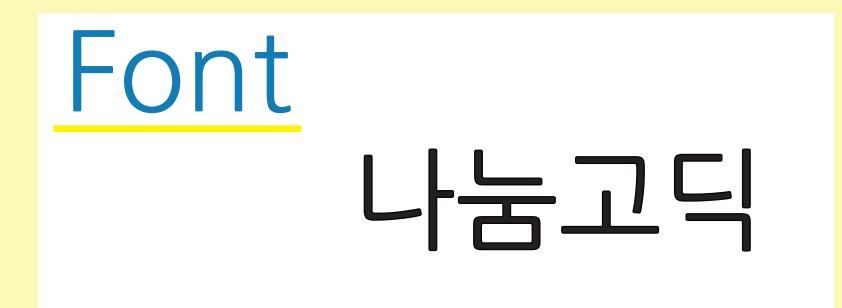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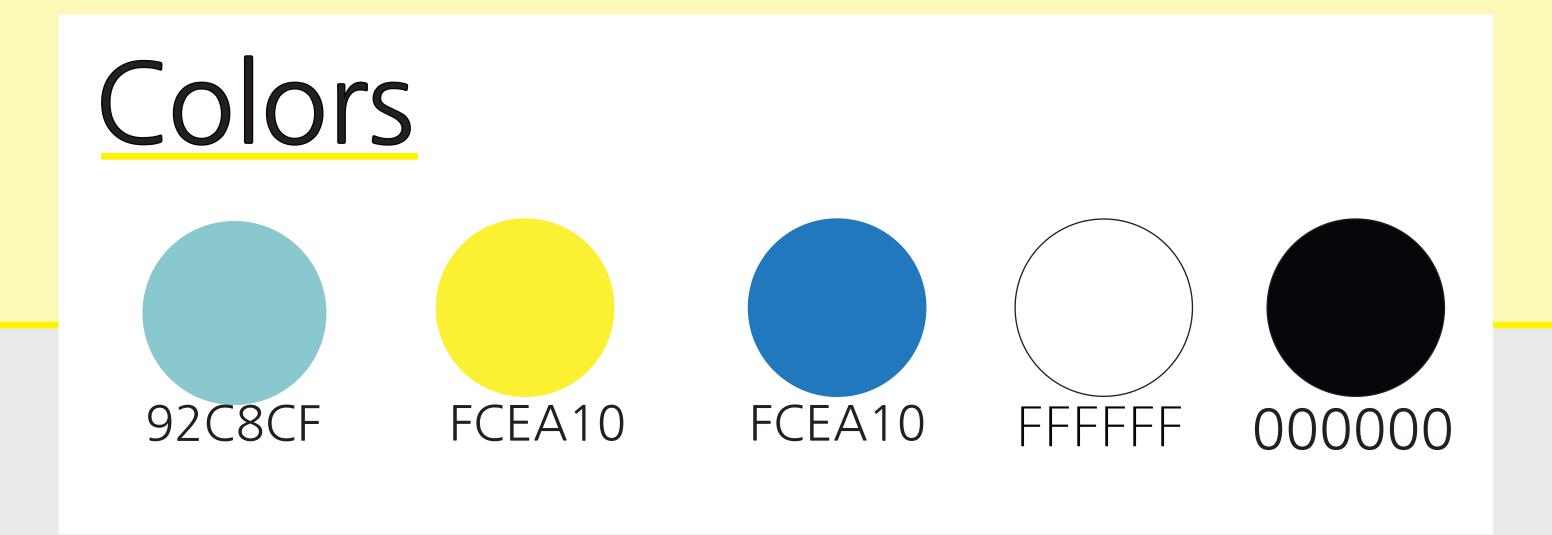
COUPang

로고의 색감 노란색은 친밀한 SNS인 카카오톡, 로고의 디자인은 아마존으로부터, 그리고 어플의 정체성과 기능은 쿠팡과 아마존에서 영감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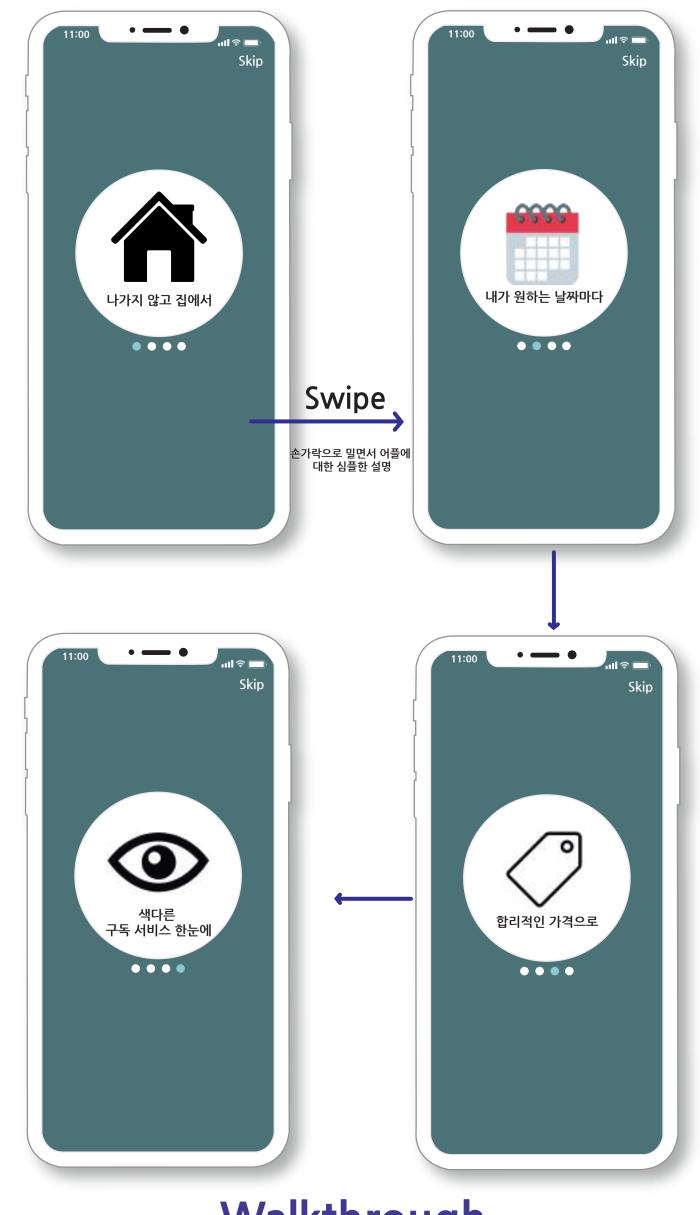
Style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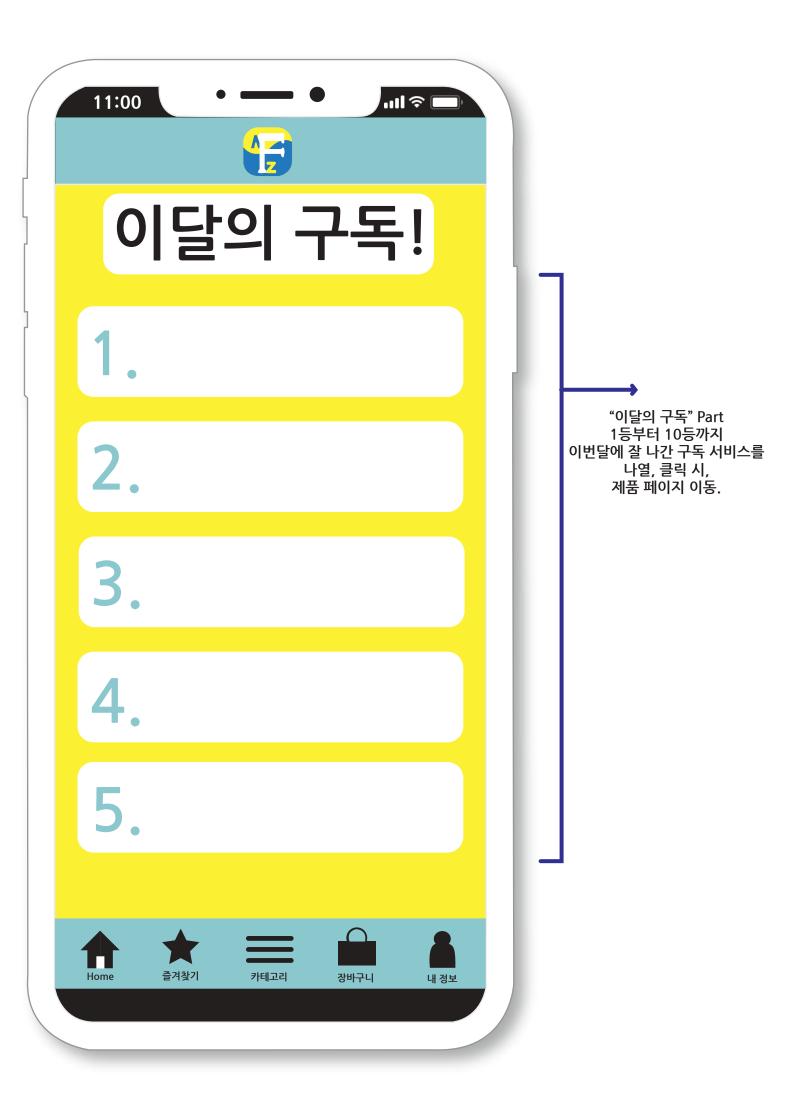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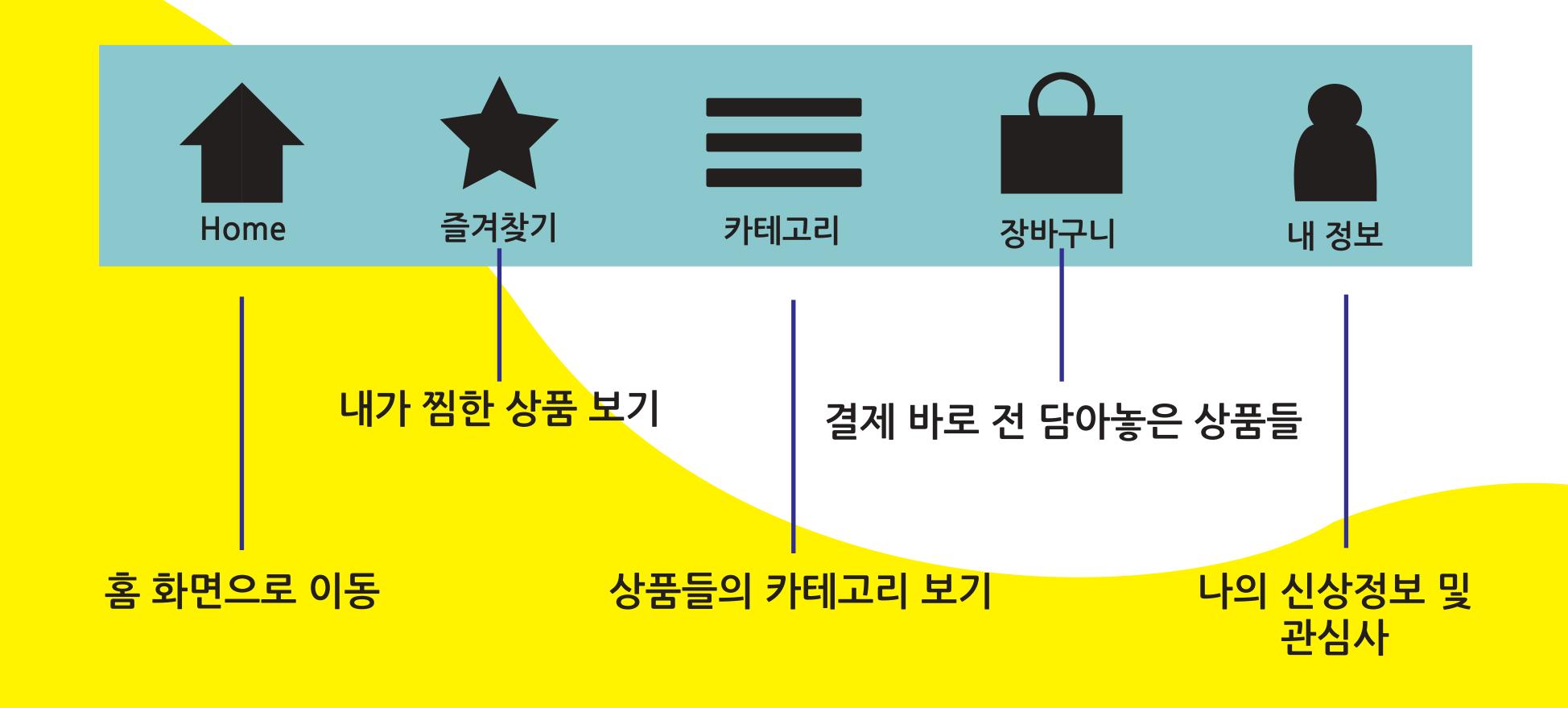
Story Board



11:00 ul 🗢 🔲 슬라이드 형식, 손으로 밀때 마다 카테고리에 알맞는 광고/ 추천이 이달의 구독 신상품 Classic 핫!타임 이벤트 Click, 이 구독 해볼래요? Main



Walkthrough



Persona

이보은

Age: 20

대학생

호기심 많고,자신을 위한 소비에 아끼지 않는다. 귀찮고 복잡한 것 을 싫어하는 성격.

"아 필요한 건 많고 이걸 매달매달 일일이 내가 시켜야하는거야? 귀찮게?" 이제 막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그녀는 생필품부터 음식까지 다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것에 귀찮다. 심지어물까지 매달매달 들어가서 결제에 가격 비교에지쳐버린다. 심지어 요리도 못하는 그녀는 늘라면이나 외식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슬슬반복되는 식사에 질려한다.

- ●목표: 대학 다니면서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다.
- 불만: 물,음식, 생필품 등등 하나하나 본인이 나가서 사오거나, 매달매달 고르고 골라서 사야하는게 상당히 귀찮음

최형식

Age: 26 직장인

매일매일이 전쟁인 직장인, 회사를 다니면서 장 볼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귀찮고 오래 걸리는 걸 싫어함. 시간에 쫓겨 살아서 성격이 급하고 불같다.

"냉장고는 늘 비어 있고, 빨래는 쌓여만 간다. 회사는 언제나 일이 많고, 나는 지쳐간다." 그는 유능한 직원 이지만, 밥부터 빨래까지 하기엔 너무 여유가 없다. 주말에 짬을 내서 빨래는 코인 세탁소, 청소는 대충 하고 그저 잠만 잔다. 늘 시간에 쫓겨서 밥은 간단하게 먹을 때가 많고, 해먹지도 못한다. 구독 서비스 신청을 생각했지만,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엔 너무 귀찮다.

목표: 잡일들은 생각하지않고 주말에 그냥 푹 쉬고 싶다.

불만: 빨래,청소,밥 등등 하고 싶지 않다. 주말에 좀 쉬고 싶다.

프로토타입 영상

https://youtu.be/5ZpVOY6k0Bo

2차 창작물 영상

https://youtu.be/xXGqFHA3JrU



2차 창작물 영상 프로토타입 영상